



알제리 공무원 연수 실시



▲ 알제리 공무원 연수생들과 기념촬영

지난 11월 19일~24일까지 1주일간 공단 본부에서 알제리 교통부 길릴(Guellil) 사무관 등 알제리 관리자급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12일 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계약을 체결한 『알제리 선박안전성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이번 연수에 참가한 공무원은 길릴 사무관 외 해양경찰청 벤멘수어(Benmansour) 항만국통제관, 알제리 해사고등연구원(ISM) 라지(Ladj)

교수이며, 연수내용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및 선박 관련 법령 소개, 선박검사 절차에 대한 강의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 관련 유관기관 및 두산인프라코어 등 산업체에 대한 현장견학 및 시찰로 이루어졌다.

한편, 알제리 KOICA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업본부에서는 이번 1차 연수에 이어 12월 3일~2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알제리 정부 실무자급 연수생 9명에 대하여 2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알제리 정부의 선박안전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양국간 협력증진과 나아가 우리나라 선박관련 기술의 아프리카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공유마일리지제도』 운영키로...

혁신팀에서는 그 동안 공단의 혁신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혁신마일리지제도’를 확대하여 직원 상호간 업무공유에 대해 부여하는 『업무공유마일리지제도』를 운영키로 하였다.

이번에 혁신팀이 『업무공유마일리지제도』를 운영키로 한 배경은 기존의 팀내 직원간 업무공유를 벗어나 본부팀 및 본부·지부 직원상호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업무수행중 취득한 각종 노하우를 필요한 직원들에게 전달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공유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연내 on/off line을 이용한 업무공유 방법과 업무공유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에 기초한 마일리지 부여방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팀에서는 향후 『업무공유마일리지제도』를 통하여 팀 및 본부·지부간 공동과제추진 및 업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사적 지식경영체계 구축 및 공단의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 세계해사대학(WMU) 및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CI) -



▲ 해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14층 교육장

지난 11월 16일 본부 14층 교육장에서 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해사대학(WMU) 및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JCI) 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공단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국제해사기구(IMO)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해사업무의 주도적 역할수행과 선박안전관련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선박관련 전문기술단체로서의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직원해외연수 결과를 전직원과 함께 공유

하고 이를 전파할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연수자들은 연수기간동안 익힌 국제해사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과 선진해운국의 선박검사체계 및 제도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한편, 우리공단은 2004년부터 매년 1명을 세계해사대학에 유학을 보내어 지금까지 3명의 국제해사업무 전문가를 육성하였고, 일본소형선박검사기구와는 2003년 12월 기술교류협력 협정체결을 통하여 상호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 상호기술교류협력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교류협력 확대를 통하여 초일류선박검사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다.

“사랑의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활동 펼쳐



▲ “사랑의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활동 실시

지난 11월 10일 인천시 남구 도화2동에서 김성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인천연탄은행과 공단내 사회봉사모임인 ‘사랑나눔회’가 함께 주관하여 무의탁 및 독거노인 총 9가구에 연탄 2,000장을 직접 배달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성규 이사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동참한 직원들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공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공단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